

한국통 설록 흠즈입니다

한국·한인과 인연각별한 사립탐정 스코트 필리

사립 탐정 스코트 필리(39·Scott Filley·사진)는 한인들과 인연이 각별하다.

형사·민사·추적 감시(Surveillance) 케이스 등 사립 탐정의 거의 전 영역에서 한인 고객들을 경험한데다 군 정보 요원으로 한국에 근무한 경력도 평범하지 않다. 부인은 중국계이다.

필리는 지난 1999년 네바다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한인의 무죄를 증명했다고 한다.

필리는 당시 한인 고객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 진범으로 여겨지는 용의자의 주변 정보와 증거를 철저히 점검, 수집한 뒤 그와 맞대면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필리는 결혼 18년만에 이혼했으나 남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몰라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한인 여성을 기억했다.

필리는 쓰레기통 뒤지기나 사



드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필리는 애리조나의 미 육군 정보 스쿨을 거쳤고 정보요원으로 대북관계 등 급박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요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분석과 정보 업무는 체질이지만 정부 일은 그렇지 못해서 사립 탐정계에 입문했다는 필리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자격증을 취득, 현재 모두 5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필리 앤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 탐정에게는 재조사 인터뷰, 컴퓨터 데이터 접근 등의 법적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에 총을 꺼내들 일이나 조직원들에게 끌려가는 등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필리는 경험을 소개했다.

필리는 특히 "정보를 찾아내는 여러 통로를 알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이 아니면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며 활동의 합법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는 미국 법 체계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주민의 보호가 법의 존재 이유인 만큼 한인들도 갈등이 생기면 법에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15)531-1607

김병찬 기자

군 정보요원으로 한국서 근무

살인혐의 한인 무죄입증 등

한인 케이스 다수 해결

립 탐정에게 허용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활용은 물론, 조사 대상자와 회사 직원을 비롯한 주변 인물 인터뷰 등 다각적인 합법 수단을 동원해 재산규모를 파악했다.

사립탐정은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서 일 할 때가 많은데 1986~87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대해 쌓인 애정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인 고객 케이스를 많이 맡게 됐다고 필리는 말했다.

필리는 사건 정황 분석과 해결 수단 모색에서 효과적이고 빠른 길을 찾아내는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필리는 이를 자신의 성향과 교육·근무 경력과 무관치 않다고 믿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주립대와 메릴랜드

	6일 (목)
최고 / 최저	61 / 39
7일 (금)	8일 (토)
61 / 41	60 / 42

10 Go 3분원성

산타클라라
서울곰탕
(408)615-0370

내년도 예산안 2조2천3백억불

부시대통령, 3일 의회 제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조2천3백억달러 규모의 2004년 예산안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점증하는 재정적자 속에서 새 감세안과 메디케어 확장, 안보강화 등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어 의회내 민주당, 공화당당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10년에 걸친 1조3천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3% 소폭 증액에 그친 1백55억달러 규모의 NASA 예산 등이 정가의 초점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던 때보다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내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로까지 이어질 양당간의 정치적 대결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① **중앙일보**

구독문의 (510)272-4600
기사제보 (510)272-4710